

모바일 뱅킹 대세...저무는 은행 점포시대

스마트폰뱅킹 고객 5752만명...1년새 34% ↑

광주·전남 1년새 은행 365코너 49곳 줄어

“딩동, 다음 고객님!”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던 은행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또 도심이나 동네 상가에 즐비했던 ‘365 코너’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기보다는 모바일 뱅킹을 쓰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현재 국내 17개 은행 및 우체국에 등록된 스마트폰뱅킹 고객은 중북부 지역을 합산해 총 5752만4000명으로 전 분기보다 6.8%(365만명)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8%(1455만명)나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폰뱅킹이 늘면서 시중 은행이 점포수를 소폭 줄이고, 365코너를 줄이고 있다.

실제 광주은행의 광주지역 365코너의 수는 11월 현재 271개소로 지난해보다 26개 줄었고,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138개소에서 115개소로 23개소가 줄어들었다.

농협의 경우도 비슷하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의 특성상 아직까지 점포와 자동화기기의 변화는 미비하지만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 11월 현재 자동화 기기는 광주는 222개소에서 208개소로 14개소 감소했고, 전남은 371개소에서 364개소로 7곳이 줄었다.

농축협은행도 같은 기간 전남은 1438곳에서 1416곳으로 22곳 줄어들었다.

NH농협은행과 농축협 e금융 유효고객 수를 살펴보면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의 증가를 실감할 수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12년 광주·전남 각각 5만739명, 7만9868명이던 스마트폰뱅킹 이용객은 지난 11월 현재 각각 9만9262명, 14만7623명으로 늘었다.

농축협도 같은 기간 광주·전남 각각 4만5185명, 6만9082명이던 스마트폰뱅킹 이용객이 12만4513명, 20만378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모바일뱅킹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때보다 고객에게 주는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컨설팅 기업 ‘베인&컴퍼니(Bain&Company)’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7개국의 금융소비자 11만4616명을 대상으로 최근 모바일 뱅킹 등 이용 채널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조사했다.

개인당 모바일뱅킹 평균 거래 건수는 2013년 분기당 6.2회에서 2015년 분기당 12.6회로 2배가량 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고객의 영업 지점 방문 횟수는 2.9회에서 2.4회로 약 20% 정도 줄었다.

고객 만족도는 모바일뱅킹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온라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영업점, 폰뱅킹 순이었다.

최재호·오광록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9.04 (-14.63)
-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2)
- ↓ 코스닥 688.42 (-14.92)
- ↑ 환율 (USD) 1178.60원 (+10.40)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가운데)과 문준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호남지역 광산업 우수기업 대표들이 광주·호남지역 우수 광(光)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광산업진흥회, 호남 光기업 지원 협약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8일 진흥회 사무실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이덕훈)과 ‘광주·호남지역 우수 광(光)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광산업 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협약기관은 ▲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 분야 우수 기업 발굴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서비스 공동 제공 및 정보교환 등에 협력하게 된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 광산업 우수기업들의 발전을 돕고 나아가 광주·호남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월 가계대출 12조 증가 ‘사상 최대’

대출잔액 900조 육박

지난 10월 아파트 집담대출이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신용대출까지 늘면서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또 최대 규모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0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1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금까지 월간 증가 규모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의 10조1000억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과 주택도시보증공사 2000억원을 합하면 가계가 10월 한 달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은 1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금융권 가계대출금의 10월 말 잔액은 792조4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 양도분 등 107조4000억원을 합친 금액은 899조8000억원으로 900조원에 육박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으로,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 빚(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중 가계대출을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7조5000억원 늘었다. 8조원이 증가한 지난 4월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고 10월 만의 증가 규모로는 최대 기록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건설업체들의 분양물량이 늘면서 집담대출이 증가하고 가을 이사철 주택구입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 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의 기타 대출도 한 달간 4조3000억원 급증하면서 월중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금융권 별로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6000억원,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6조7000억원이고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에 그친 반면 기타대출이 2조4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버스요금 결제 삼성 페이로” 8일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페이’를 이용해 버스요금을 결제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중교통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삼성 페이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 페이 교통카드 서비스는 삼성 페이에서 모바일 티머니와 캐시비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카드 발급 후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없이도 그냥 스마트폰을 교통카드 결제기에 대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삼성전자 제공>

대기업 ‘탈 스펙’ 채용 확대

삼성 등 학점·어학성적 기재 없이 블라인드 면접 도입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이 ‘탈(脫)스펙’ 채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공채 지원서류에 학점, 어학성적, 사진,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거나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대졸 공채제도를 분석해보니 지원서류에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한 곳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20개 그룹이었다. 면접에서 학교, 전공 등의 신상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 곳은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10개 그룹이었다.

삼성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점제한을 폐지했다. 면접에서는 창의성 면접을 도입해 지원자의 문제해결능력과 논리 전개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동아리, 봉사, 학회활동 기입란을 삭제했다. 면접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1차 면접 복장을 자율화했으며 양재동 본사에 채용전용 면접장인 H-Square를 마련해 매일 직무상담회와 상시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SK그룹은 지원서류에 사진, 어학성적, IT활용능력, 수상경력, 주민번호, 가족관계 등의 기입란을 삭제했고 자기소개서 위주의 서류전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LG 그룹은 지난해부터 지원서류에 어학성적, 자격증, 수상경력, 인턴경험 등의 스펙 관련 기입란과 주민번호·사진·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 기입란을 삭제했다. 롯데

그룹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서류에 사진, 어학성적, 자격증, IT활용능력, 수상경력, 대외활동경력 등의 기입란을 삭제했다. 포스코그룹도 올해 상반기부터 전공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서류에 어학성적, 해외 경험 등의 기입란을 삭제했다. 또 직무역량·최종 면접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고 있다.

GS건설은 지원서류에 해외 경험, 병역 여부, 가족관계 등의 기입란을 없앴다. GS칼텍스, GS건설, GS리테일 등은 1차 실무 면접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을 가린 채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원서류에 어학 점수 기입란을 삭제했고 이공계 지원자는 한 자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현대종합상사는 1·2차 면접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신장, 학력 등의 지원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한화그룹은 지원서류를 모든 계열사 공통 양식에서 계열사 개별 양식으로 변경해 사별로 필요한 항목만 기입하고 있다. 면접에서는 대부분의 계열사가 3차 이상의 면대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KT그룹은 모든 모집분야에 전공제한을 폐지했다. 두산그룹은 2009년부터 지원서류에 학점 기입란을 삭제했고, 지원자 역량 평가를 중시하는 서류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부터 2차 면접(드림스테이지)을 블라인드면접으로 진행하고 있다. CJ 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어학성적 등의 지원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연합뉴스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